

## 평생 구강위생 관리로 임상과 경영 두마리 토끼 잡기

박 정 현 / 보아치과

치과 치료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는 적극적인 치과치료를 이야기한다. 충치를 치료한다던가 치주질환을 치료한다던가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모든 질환의 가장 좋은 치료는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예방은 치료하기 전에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적극적인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어떤 질환이든지 예방을 하려면 그 질환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한다. 양대 치과 질환인 치아 우식증과 치주질환은 많은 세월의 연구를 통해서 구강내 세균이 원인이라고 밝혀졌다. 물론 환경적인 원인과 환자 신체 자체의 원인도 있지만 외부 요인은 구강내 세균이다. 그 중 많은 구강내 세균들이 치주질환의 원인균으로 발견되었으나 그 중에도 레드컴플렉스라고 불리는 세계의 구강내 세균이 주된 원인균으로 밝혀져 있으며 이 세균의 덩어리들을 우리는 치태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치주질환의 예방을 위해 치태를 관리해야 하지만 현재 치주질환 치료는 치태가 석회화된 치석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은 치태를 제거하여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구강위생관리의 임상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또한 아무리 예방 치료라고 하더라도 치과에서 경영적으로 무리가 되면 실제 진행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많은 국민이 의료에 접근하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수익률이 좋지 않은 일부 진료들은 치과에서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단점들도 생긴다. 예방이라는 진료도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에서 적용하기가 애매하고 따라서 치과에서 많이 외면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예방 그 자체에서 수익을 얻는다고 보다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임상적인 장점과 더불어 환자를 내 치과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방법이라는 경영적인 측면까지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 학력 및 경력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수련
- \* 치주과 전문의
- \* 대한치주과학회 이사
- \*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이사
- \* 구강악안면레이저치의학회 부회장
- \* 현, 보아치과의원 원장